

#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김 영 숙

안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 은 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가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양육 행동, 스트레스, 사회 지지 변인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82명의 6세 아동과 어머니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에 관한 설문지에 답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의 사회 유능성 설문지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교사가 측정한 아동의 사회 유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그들의 양육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 행동은 높게 나타났고 민주적 양육 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에게 있어 사회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 양육 스트레스·양육 태도·사회 지지·사회 유능성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는 또래와 사회적으로 유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 관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Coie, Dodge 및 Coppotelli (1982)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공격적이고 안정되지 못한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행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반면에, 아동기에 협조적이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기가 높은 아동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이르러 문제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기의 사회 발달은 이 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Belsky (1984)에 따르면 아동 발달은 부모의 양육 행동 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특히,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 관계, 부모의 인성 등은 부모 행동 그리고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인 중,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 지지, 부모 양육 행동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Hart, Ladd 및 Burleson (1990)의 연구에서, 부모가 강압적인 경우, 즉, 덜 애정적이며, 매를 사용하거나, 제한적인 부모의 아동은 또래 아동과의 관계에서 인기가 낮았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 행동이 따뜻하고, 이성적으로 아동을 지도하며, 아동을 방관하지 않고 적절하게 요구하는 부모로 묘사되는, 민주적인 부모의 아동은 다른 아동과 친근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umrind와 Black(1967)의 연구에서도, 따뜻하고, 일관적으로 아동에게 요구하는 민주적인 부모의 아동은, 거절적이고 무관심한 부모의 아동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에서 시사하듯이,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이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획득한 사회적 기술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 외에 가족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결국,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elsky, 1984).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등의 부정적인 생활의 스트레스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아동 양육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와 아동 그리고 가족 전체의 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대부분의 가족에게 있어 죽음, 사고, 병 등의 주요 스트레스 상황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Crnic과 Greenberg, 1987). 따라서, 부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연구할 경우, 주요 스트레스 상황(죽음, 병, 사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반복되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부모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Lazarus, 1984).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경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Lazarus, DeLongis, Folkman과 Gruen, 1985).

이러한 경미한 스트레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아동이 말을 안 듣거나, 조르거나, 형제끼리 싸우거나, 또는 아동이 어질러 놓은 방을 끊임없이 청소하는 등 매일의 생활에서 부모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Crnic과 Greenberg, 1990). 이러한 각각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몇 가지의 스트레스가 매일 계속해서 축적될 경우, 부모와 아동, 그리고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tterson (1983)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소수의 양육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그들의 양육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아동에게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의 스트레스 외에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 지지 변인이다. 사회 지지는 가까운 부부 관계를 포함하여 친구, 또는 이웃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수단적인 도움을 말하며, 이러한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 받고 가치 있는 개체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Cobb, 1976).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도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은숙, 1989; 김희순, 1989). 또한, 사회적 지지는 생활의 스트레스가 부모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높은 사회 지지는 높은 생활의 만족감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예측하였다 (Crnic, Greenberg, Ragozin, Ribinson과 Basham, 1983). 따라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elsky, 1984).

위의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 지지는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 시의 스트레스, 양육 행동, 사회 지지 변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위의 문헌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지지, 스트레스는 부모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 양육 행동과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 행동과 사회 지지는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며 반면에,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82명의 (53명은 남아, 29명은 여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이 연구의 목적과 가족 배경 설문지를 아동을 통해 어머니께 전달하였으며, 이 연구에 관심 있는 어머니들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전달하였다. 96명의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하였지만, 아동 또는 어머니의 불충분한 연구 자료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82명의 어머니와 아동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동의 연령은 41개월에서 64개월까지 평균 54개월이며, 어머니의 연령은 27세에서 44세 (평균 34세)의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부모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55%의 어머니와 80%의 아버지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 2. 조사 도구

1) 가족 배경 설문지-어머니는 아동의 성별, 나이, 부모의 나이와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다.

2) 어머니의 아동 양육 행동-어머니의 아동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Dekovic, Janssens 및 Gerris (1991)에 의해 개정된 Block (1965)의 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CRPR)를 사용하였다. Dekovic 등(1991)은 CRPR을 요인 분석한 결과, 2가지 형태의 부모 양육 행동 (민주적, 강압적)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민주적(22 문항), 강압적 양육 행동(18 문항)은 총 40문항의 설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들은 각 문항이 자신의 양육 태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Likert식 6점 척도로 표시하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본 연구의 민주적, 강압적 양육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 .90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 행동 문항은,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의견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아이를 껴안고 뽀뽀해 주고 손을 잡는 등, 나의 애정을 표현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압적 양육 태도의 예로, “나는 아이에게 열 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때를 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나에게 화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3) 양육 스트레스-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과 Greenberg (1990)의 부모 양육 스트레스 (Parenting Daily Hassl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한다 (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5=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PDH는 두 가지 요소(양육 시 스트레스, 아동 행동에 관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요소 1 (양육 시 스트레스)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양육 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 어질러 놓은 것을 계속해서 치우는데 대한 스트레스, 또는 아동의 계획을 맞추기 위해 부모의 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질문한다. 스트레스 요소 2 (아동 행동에 관한 스트레스)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행동이 부모를 힘들게 할 때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이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잠을 자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경우에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스트레스 요소 1과 요소 2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Cronbach's Alpha=.79, .82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어머니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rsonal Resources Questionnaire (Weinert와 Brant, 1987)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

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개인이 얼마나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지(도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지 Likert식 7점 척도에 따라 표시한다 (7=매우 동의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 지지 설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 “나는 장시간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내가 충고가 필요할 때 그 상황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5) 아동의 사회성 발달-아동의 유치원에서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Kohn (1988)의 사회성 능력 측정 설문지를 각 아동의 교사가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4-7세 아동의 2가지 측면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즉, 아동의 학급 내 활동에서 보여주는 참여-흥미,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협조-순응하는 사회적 행동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흥미-참여 요소는 아동이 학급에서 보이는 흥미, 호기심, 발표력과 다른 아동과의 활발한 참여 활동을 알아본다. 두 번째 요소인 협조-순응은 아동이 학급의 순서나 규칙에 기꺼이 따르고 다른 아동과 협조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설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참여-흥미와 협조-순응이 각각 .88, .93으로 발표되었다. (Kohn, 1988).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아동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와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점수 범위는 표 1과 같다. 또한, 아동의 사회 유능성 점수는 T점수로 환산된 표준화 점수이다.

**표 1. 어머니의 민주적, 강압적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 아동의 사회 유능성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점수범위      |
|----------|------|------|-----------|
| 민주적양육행동  | 4.75 | .61  | 2.72-5.94 |
| 강압적양육행동  | 2.84 | .57  | 1.64-4.36 |
| 양육스트레스1  | 2.34 | .55  | 1.13-4.00 |
| 양육스트레스2  | 2.61 | .69  | 1.29-4.71 |
| 사회지지     | 5.34 | .71  | 2.40-6.48 |
| 아동의사회유능성 |      |      |           |
| 참여-흥미    | 50   | 10   | 29-72     |
| 협조-순응    | 50   | 10   | 24-70     |

\* 아동의 사회 유능성을 제외한 평균 점수는 전체 점수를 문항 수를 나누어 나타낸 점수이다.

〈표 2〉에서 보면, 어머니의 민주적 그리고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유능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지지는 아동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유

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가 양육 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요소 1) 아동은 참여-흥미 사회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한, 어머니가 아동 행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요소 2) 그들 아동은 참여-흥미 그리고 협조-순응 사회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 지지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그들이 인식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는데, 즉,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양육 스트레스 요소 1(양육 시 스트레스) 그리고 요소 2(아동 행동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강압적 양육행동은 양육 스트레스 요소 1 그리고 스트레스 요소 2와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지지는 유의미한 관

**표 2. 어머니의 교육, 민주적, 강압적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지지와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의 상관관계 ( $p + < .10$   $p^* < .05$ )**

| 사회 유능성 | 어머니 교육           | 민주적 양육행동 | 강압적 양육행동 | 스트레스1             | 스트레스2             | 사회지지 |
|--------|------------------|----------|----------|-------------------|-------------------|------|
| 참여-흥미  | -.04             | -.07     | .00      | -.15 <sup>+</sup> | -.22 <sup>*</sup> | -.07 |
| 협조-순응  | .17 <sup>+</sup> | .11      | .04      | .07               | -.16 <sup>+</sup> | -.03 |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지지와와의 상관관계**

|       | 민주적 양육행동 | 강압적 양육행동 | 양육 스트레스1           | 양육 스트레스2           | 사회 지지              |
|-------|----------|----------|--------------------|--------------------|--------------------|
| 민주적   | 1        | -.07     | -.15 <sup>+</sup>  | -.30 <sup>**</sup> | .47 <sup>***</sup> |
| 강압적   |          | 1        | .37 <sup>***</sup> | .47 <sup>***</sup> | -.12               |
| 스트레스1 |          |          | 1                  | .67 <sup>***</sup> | -.24 <sup>*</sup>  |
| 스트레스2 |          |          |                    | 1                  | -.28 <sup>**</sup> |
| 사회지지  |          |          |                    |                    | 1                  |

$p + < .10$ ,  $p^* < .05$ ,  $p^{**} < .01$ ,  $p^{***} < .001$

제가 있었는데, 즉, 민주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높은 사회지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요소 1과 스트레스 요소 2는 그들이 인식한 사회지지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즉,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유의한 상관관계는 예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 AV.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사회지지 인식과 아동의 사회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가설의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 아동은 참여-흥미와 협조-순응 등의 사회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 결과는 김태련, 박랑규, 이경숙 (1991)과 Crnic과 Greenberg (1990)의 연구,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이 높았으며 반응성(responsiveness)이 낮게 나타난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및 Basham (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Belsky(1984)에 따르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많이 하였으며 (Dumas, 1986

; Patterson, 1983), 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과의 상호 작용에서 민감성이 높았다 (Crnic 등, 1983). 본 연구의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도 위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들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적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결국,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1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유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민주적일수록 아동은 사회적으로 높은 유능성을 나타내었는데, 즉, 학급 내에서 인기가 높고, 자주성이 높으며, 성취 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강압적 부모들의 아동들은, 긍정적 정서 상태와 또래 친구들과의 화합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공격성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Baumrind, 1967, 1971a; Dekovic & Janssens, 1992).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선행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측정 시, 관찰을 통하여 부모 행동을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응답한 자신의 양육행동과 그들의 실제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설문을 통한 방법은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두 번째 이유로, 설문지에 반응할 때,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수 있는데, 즉, 민주적인 양육 방식에는 높은 점수를 강압적인 양육 방식에는 낮은 점수로 응답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민주적, 강압적

양육행동의 평균을 살펴보면, 강압적 양육 방식의 평균은 2.84로 또한, 민주적 양육 방식의 평균은 4.75로 나타났는데, 즉, 민주적 양육 방식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설 1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사회지지 인식과 아동의 사회유능성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회지지 인식은 그들의 아동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 발달과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Belsky의 (1984) 가정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사회지지 인식과 아동 사회성 발달 변인과의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지지는 그들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즉, 어머니가 높은 사회지지를 인식할수록 그들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아동 복지의 중요한 분야인 사회성 발달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지지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어머니와의 관계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여러 연구를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Belsky (1984)는 타고난 아동의 기질이 아동 스스로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성격이 어려운 아동들 즉,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아동들의 경우, 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성격이 쉬운 아동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아동의 기질은 그들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들 스스로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의 선천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경험 또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Lieberman, 1977). 특히 아동기는 그들의 관심이 부모 외 친구에게 향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한 연습이 아동

의 친구와의 사회성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요소로서, 이러한 아동의 선천적 특성과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부모 변인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변인간의 원인 결과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지지,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종말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부모 가정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 또는 결손가정의 아동일 경우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표준화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 연구의 문제를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그들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지지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김은숙 (198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순 (1989). 정서-정보적 지지 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련, 박랑규, 이경숙 (1991). 자폐아동부모의

-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능력 지각과의 관계,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1991년도 춘계학술대회.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71a).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3.
- Baumrind, D., & Black, A. E.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50, 291-32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ck, J. Q. (1965).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92). Dimensions of social status: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57-57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 925-932.
- Dekovic, M., Janssens, J. M. A. M., & Gerris, J. R. M. (1991).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Block 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 (2), 182-187.
- Dumas, J. E. (1986). Indirect influence of maternal social contac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A setting event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205-216.
- Hart, C. H., Ladd, G. W., & Burl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Kohn, M. (1988). *Kohn problem checklist/Kohn social competence scale*.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 Lazarus, R. S. (1984). Puzzles in the study of daily hassl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 375-389.
- Lazarus, R. R.,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Influence of attachment and social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235-264). New York : McGraw-Hill.

Weinert, C. & Brant, P. A. (1987). Measuring social support with the PRQ.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 9, 589-602.

## **Mothers'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ir 6-year-ol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Young Sook,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 Yang University

**Eun Young, Cho**

Department of Child Stud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 i)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social support to their 6-year-ol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ii) the possible link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social support.

The sample consisted of 82 mothers and their 6-year-old children from intact families. Mothers filled out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eachers ra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in preschool settings using Kohn's (1988) Social Competence Scale.

Correlational analyses showed that when mothers had high scores on parenting stresses, thei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scores on social competency scale. The predicted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y were not borne out in the present study. However,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among three variables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social support).

Mothers' parenting stresses a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y.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need of social support in high stressed families.

**Key Words :** parenting stress·parenting attitudes·social support·social competence.